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디지털 혁신으로 영업이익 부진 돌파구

롯데홈쇼핑은 롯데그룹 계열 홈쇼핑 회사로 2001년 개국한 우리홈쇼핑이 모태다. 2007년 롯데그룹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이후 채널명은 롯데홈쇼핑, 법인명은 우리홈쇼핑으로 이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 소송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홈쇼핑은 원래 경방 계열사로 당시 경방 측에서는 저물어가는 섬유 산업 대신 홈쇼핑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태광그룹이 우리홈쇼핑의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며 우리홈쇼핑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태광그룹과 경방이 경영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던 중 경방이 지분을 롯데그룹에 넘겨주면서 갑자기 롯데그룹이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차곡차곡 지분을 모아오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적잖이 썰이 났다. 이후 태광산업은 절차 과정을 문제삼아 2010년



서초3차대림e편한세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37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롯데쇼핑의 최대주주 지위 인정을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6년 태광그룹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접수한 롯데쇼핑에 대해 '당시 롯데쇼핑이 방송법을 어긴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냈다'며 행정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태광그룹은 소송에 패배, 사명 변경이 불가능해 채널명을 '롯데홈쇼핑'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롯데홈쇼핑을 이끄는 이완신 사장은 고려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7년 롯데쇼핑에 입사해 백화점사업본부 여성류팀장, 안양점장, 강남점장, 노원점장 이사, 부산본점장 상무, 본점장, 마케팅부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지냈다. 이후 2017년 3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선임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사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완신 대표가 2017년 롯데홈쇼핑 경영 일선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롯데홈쇼핑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 2015년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직원이 중소기업체 납품비리에 연루돼 '비리 홈쇼핑'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다.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롯데홈쇼핑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은 이완신 사장은 롯데

홈쇼핑의 이미지 개선과 패션 분야 공략,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며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시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롯데홈쇼핑은 수익성 악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2분기 매출액은 27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00억원보다 4.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0억원으로 전년 동기 380억원에 비해 18.1% 감소하며 매출 성장이 둔화했다.

이완신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롯데홈쇼핑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수년간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RPA(로봇 처리 자동화) 등 기존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빠른 실험을 지속해 왔다.

올해에는 MZ세대를 타깃으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발견형 V 커머스 플랫폼 wyd(와이드)와 커뮤니티 기반 패션 플랫폼 ITOO(아이투)를 론칭하여 단기간에 고객 50만명과 콘텐츠 30만개를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올 하반기에는 가상 디지털 인플루언서 Lucy(루시)가 쇼호스트로 데뷔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내년에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홈쇼핑 방송 센터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신 대표가 디지털 전략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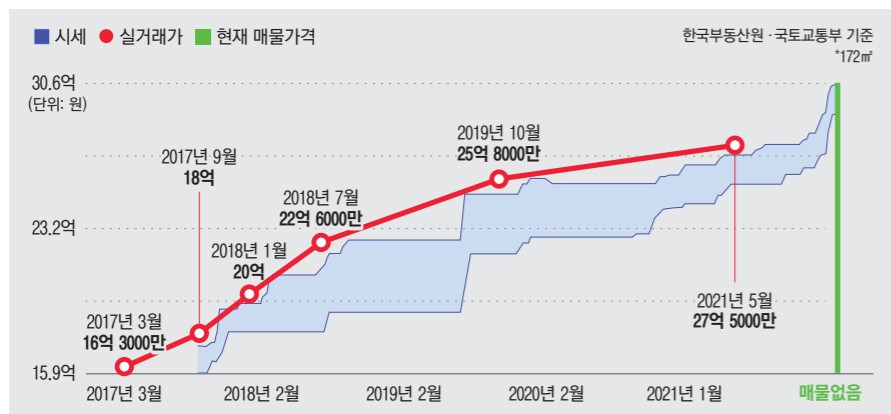
- 2003년~2005년 롯데백화점 안양점 점장
- 2005년~2006년 롯데백화점 강남점 점장, 이사대우부장
- 2007년~2009년 롯데백화점 노원점 점장, 이사
- 2010년~2012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점장, 상무
- 2012년~2014년 롯데백화점 본점 점장
- 2014년~롯데백화점 마케팅부부장
- 2017년~롯데홈쇼핑 대표이사
- 2018년~2019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 2020년~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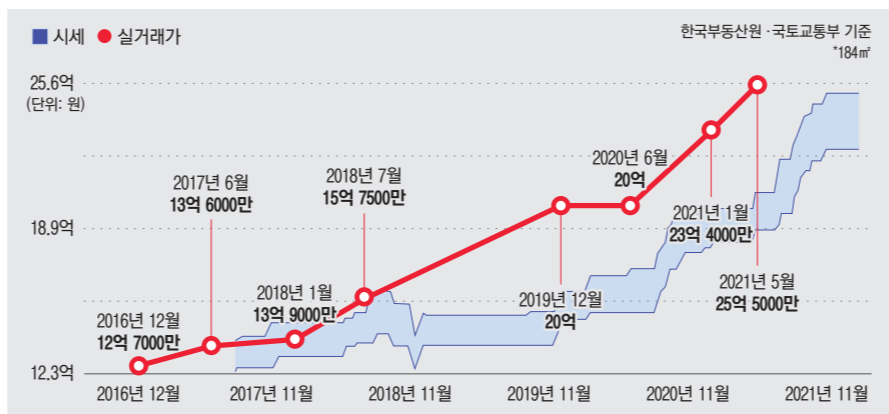
진흥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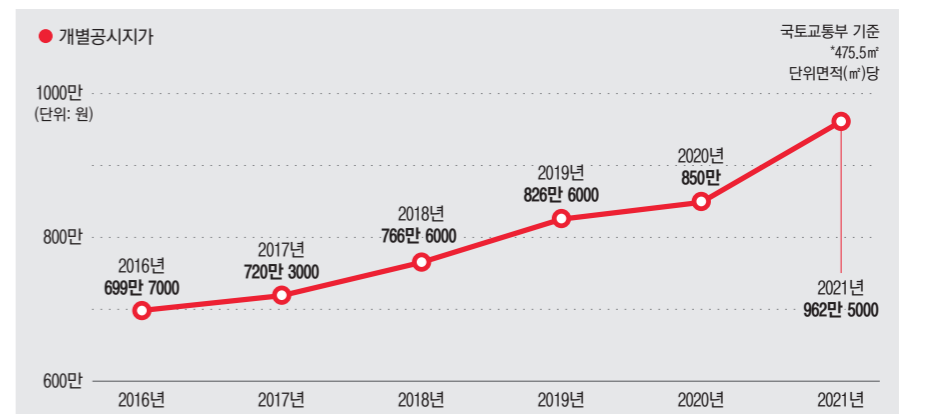
서초자이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4-7



제이라인 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4-1



권성준

현)양양군 보건소장

권성준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장은 한양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외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양대 교수협의회



회장, 대한위암학회 편집위원장,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 한양대의료원 기획관리실 실장, 한양대병원 압센트 소장, 한양대병원 병원장, 한양대 의과대 외과학교실 교수를 지냈다. 그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병원에서 흰 가운에 청진기를 목에 건 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에 반한 뒤 부터다. 이후 한양대 의대에 입학해 치료



곽수근

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보성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대정공 대리, 서울대학교 경영대 경영학과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관장, 서울대 경영대학원장, 한국중소기업 학회장, 국제회계기준재단 이사회 이사, 포스코 기업시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9년 포스코 기업시민위원

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민하고 외부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하며 제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 받았다. 또한 2015년 검찰 수사 등으로 실추된 포스코 그룹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발족된 포스코 비상경영태스크포스 외부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해 경영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재중

현)가수, 탤런트

김재중이 활동했던 동방신기는 초기 한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 그룹 중 하나로 꼽힌다. 2004년 데뷔해 일본·중국·동남아 등에 한국 가요를 알리고 한류 열풍에 기여했다. 이후 김재중은 동방신기를 탈퇴해 같은 멤버였던 박유천, 김준수와 함께 세 사람이 만든 'YJ'라는 그룹을 결성했다. 김재중은 비주얼과 가창력 덕분에 높은 인기를 누렸으며 동방신기의 인기와 함께 단숨에 한류스타 반열에 올랐다. 아울러 김재중은 배우로서도 종횡무진 활약했



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이후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닥터진' '트라이앵글' '스파이' 등 다양한 작품에서 출연했다. 김재중은 라이프타임채널 '트래블버디즈2: 함께하도록'에 출연해 고성완주 등 국내 곳곳을 여행하며 직접 사진을 찍고 손글씨로 여행기를 기록한 '도록'을 만들었고 지난 9월 완판돼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군자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상업지역 확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는 군자역 중심반경 350m(약 14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한다고 밝혔다.

구는 군자역 일대의 상업지역을 확대해 지역 발전 견인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해 기초조사와 여건 분석, 주민설문조사 등으로 과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시와 협의 끝에 마련됐다.

이번 열람공고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특별계획구역을 통한 규모 있는 개발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 △주거복합 건축물 허용 등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해 지구중심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는 구내 주거지역 비율이 68%를 차지하며 다수의 한강 대교들과 강변터미널도 시설도 역세권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업무상업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



군자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군자역의 경우 지하철 5호선이 환승되는 더블역세권이다. 더불어 천호·길동 지역중심과 한양도성 도심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유통축(천호대로)과 성수와 목동을 잇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축(축(동일로)이 교차하며 문화예술거리 능동로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춰 군자역 일대를 재정비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주민열람을 통해 수립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향후 연내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방침이다.

김선갑 구정장은 "광진구는 편리한 교통과 다수의 역세권 등 가진 입지요건에 비하여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실현을 통해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중심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2026년 준공

전라남도 고흥군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 송귀근 고흥군수, 김현철 ㈜씨앤아일랜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레저휴양을 아우르는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각광을 받았고 이에 힘입어 2026년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가 들어선

다. 이에 따라 고흥이 목포·순천·여수와 함께 남해안권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협약에 따라 ㈜씨앤아일랜드는 고흥 영남면 일원 156만7000㎡ 부지에 4923억 원을 투입해 컨벤션 시설, 분양형 호텔 300실·단독형 풀빌라 100실·골프장 27홀·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준공한다. 더불어 15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1221㎡ 규모 송파 반려견 놀이터 조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는 탄천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1221㎡ 규모의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송파 반려견 놀이터는 중소형견 구역(660㎡)과 대형견 구역(560㎡)으로 나누어 조성했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그늘막·관리실·안내관·CCTV 등 반려견 소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반려견 놀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반려견(동물등록을 마친 반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는 나로 우주센터·순천만 정원·여수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전남 남해안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증가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지사는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할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프로젝트다"며 "고흥군과 함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려견)과 소유자가 함께 입장하여야 하고, 맹견 5종 또는 질병견 등은 출입이 제한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송파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동물 복지를 증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